

요즈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코로나는 후베이성 우한 시 화난수산물시장에서 감염된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유행이 시작되었으며 우한 시 내에서 지속적인 확산을 보이고 있다. 우한 거주자 또는 여행자가 중국의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여 발병이 확인되고 있고 한국, 대만, 미국, 일본, 태국에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박쥐로 추정)에서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아와 청소년들이 우울과 불안, 두려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관련 심리상담 건수도 증가하는 등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족과 보호자들이,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막연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와 예방수칙을 쉽게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7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수 이상(69%)이 코로나19가 ‘무섭다’고 응답했다.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답답함(44.1%)과 짜증(22.4%), 무감정(10.9%), 두려움(9.0%)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초등학생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명 중 1명은 우울증 및 불안증을 호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기에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키고 키우려면, 가정과 학교에서의 배려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는 손씻기·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설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 사이에서 감염된 친구에 대한 편견과 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과 “잘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함께 이겨냅시다” 등의 격려와 긍정, 희망의 말을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불안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